“손흥민은 킬러다”

EPL 개막전, 케인 없는 토트넘 원톱 맨시티 상대 1호골 … 1-0 승리 선물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 1호골을 폭발하며 팀에 승리를 선물했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2021-2022 EPL 1라운드에서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후반 1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렸다.

토트넘은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며 맨시티를 1-0으로 제압했다.

‘주포’ 해리 케인이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지휘봉을 잡은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에 첫 득점을 선물했다.

반면 토트넘에 덜미를 잡힌 맨시티는 역대 EPL 무대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전에서 패배한 세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맞아 산투 감독이 선택한 4-2-3-1 전술의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맨시티는 전반 4분 일카이 귄도안이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때린 오른발 프리킥이 수비벽을 스치고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며 득점 기회를 놓쳤다.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서도 페르난지뉴의 헤딩슛이 왼쪽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10분 만에 득점포가 터졌고,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역습 상황에서 베르흐베인이 중원까지 치고 올라간 뒤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에게 볼을 연결했다.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앞을 가로막은 맨시티의 네이선 아케를 따돌리고 강력한 왼발슛으로 맨시티 골문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손흥민이 개막전에서 터뜨린 리그 1호 골이었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개인 통산 7골(정규리그 4골·UEFA 챔피언스리그 3골)을 따내며 ‘천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연합뉴스

결승골 순간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에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4경기 만에 득점포 … 광주FC 연패 탈출

헤이스 페널티골로 인천 꺾어 전남은 안양에 1-2 패배

광주FC가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광주FC가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1 25라운드 경기에서 헤이스의 페널티킥으로 1-0 승리를 기록했다.

성남전 0-0 무승부 뒤 서울 원정(0-1), 전북 원정(0-3)에서 연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4경기 만의 득점과 함께 승리를 만들었다.

‘막내’ 엄지성이 분위기 메이커가 됐다.

전반 14분 왼발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한 엄지성은 전반 29분에는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중앙에서 달려오던 헤이스에게 공을 넘겼다. 헤이스가 다시 왼쪽에 있던 이의뜸에게 패스를 했고 강력한 왼발 슈팅이 이어졌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켜났다.

전반 40분에는 엄지성이 헤이스가 찔러준 공을 오른발로 잡아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번에는 골키퍼 김동헌에게 막혔다.

43분 이민기의 강력한 슈팅도 골키퍼 맞고 나오면서 0-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엄지성이 페널티킥을 만들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공을 뺏은 엄지성이 페널티박스 라인에서 네게바에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 끝에 광주의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헤이스가 키커로 섰다. 헤이스는 침착하게 골대 왼쪽을 가르면서 4경기 만에 광주의 득점을 만들었다.

후반 초반 인천의 공세가 거셌다. 광주는 예리한 프리킥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11분 이으뜸이 오른쪽에서 매서운 왼발로 직접 프리킥을 날렸고, 아쉽게 골대를 맞았다. 후반 30분에는 방향을 바꿔 헤이스가 키커로 나섰고, 공이 바운드 된 뒤 상대 골대로 향했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후반 37분에는김주공이 엄지성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지만 공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광주는 후반 43분 송시우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비켜나면서 마지막 위기를 넘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승리를 기록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안양전 패배로 4위로 내려왔다. 전남은 지난 1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경기에서 1-2로 졌다.

전반 17분 백동규에 이어 전반 23분에는 조나탄에게 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이 0-2로 끝났다.

전남이 후반 시작과 함께 이종호와 발로텔리를 투입해 전세 만회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19분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다투던 김병오가 닐손주니어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이종호가 침착하게 골대 왼쪽을 가르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남이 추가골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1-2로 마무리됐고, 2위에서 4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7연전 강행군 … 마운드 운영 ‘시험대’

타이거즈 전망대

두산 베어스와 원정경기 시작 20일부터 안방서 키움 상대

윌리엄스 감독의 ‘마운드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7연전 강행군에 나선다.

주중 잠실에서 경기를 치르는 KIA는 20일 안방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한다. 앞서 비로 취소됐던 경기가 23일 월요일 경기로 편성되면서 7연전 일정이 펼쳐진다.

‘마운드’가 7연전 승률의 주요 변수다.

KIA는 지난주 우려와 달리 선발 대란을 겪지는 않았다.

브룩스의 갑작스러운 퇴단으로 임기영이 하루 앞당겨 출격했지만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스타트를 잘 끊어줬다. 그리고 김현수가 5.2이닝 무실점의 ‘깜짝 호투’를 선보였고, 멩덴과 이의리도 나란히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선발 싸움을 해줬다.

선발진이 초반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주면서 KIA는 8연승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주 아쉬운 부분도 역시 마운드다.

KIA는 11일과 14일 무승부를 기록했다. KBO리그 지휘봉을 잡은 뒤 단 한 번도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았던 윌리엄스 감독이지만 후반기 연장전이 폐지되면서 연달아 무승부를 남겼다.

■KBO중간순위 (16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KT	81	48	0	33	0
2	LG	80	46	0	34	1.5
2	삼성	85	46	1	38	3.5
4	키움	86	46	0	40	4.5
4	SSG	85	43	3	39	5.5
4	NC	80	39	4	37	6.5
7	두산	79	38	0	41	9.0
8	롯데	83	36	1	46	12.5
9	KIA	79	33	2	44	13.0
10	한화	84	29	3	52	19.0

두 경기 모두 패배 같은 무승부였다.

11일 한화전에서는 7-1로 앞선 9회 이승재의 제구 난조를 시작으로 마운드가 요동쳤다. 이승재가 볼넷 3개를 기록하면서 흔들리자 김현준이 투입됐지만 역시 아웃카운트를 더하지 못하고 1피안타 1볼넷으로 강판됐다.

마무리 정해영이 긴급 투입됐지만 최재훈에게 동점 스리런을 맞으면서 경기는 7-7로 끝났다.

14일에도 8회초 김민식이 역전 솔로포를 터트렸지만 2-1에서 시작한 9회말 정해영이 김강민에게 다시 동점 솔로포를 맞았다.

정해영에게 부담이 집중된 불펜이 시작과 함께 삐걱거리면서 아쉬운 무승부 2개가 쌓였다.

15일 SSG전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임기영이 흔들렸다.

2회초 이창진의 스리런이 나왔지만 1회 시작과 함께 연속 안타로 실점을 한 임기영이 2회에는 볼넷이 이어 박성한에게 투런포를 맞았다. 이어 3연속 안타로 2사 만루에서 강판됐다. 김유신이 출격했지만 불붙은 SSG 타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유섬에게 만루포를 맞는 등 KIA가 2회에만 8실점을 하며 승기를 내줬다.

앞서 12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선발진 운영에 변화가 예상됐었다. 이번 주 7연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로테이션을 하루씩 밀어 김유신-멩덴-이의리로 주말 3연전을 치르고, 7연전을 임기영 중심으로 풀어가는 전략이 예상됐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다시 한번 김유신에게 불펜 대기를 주문했다.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전략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임기영이 2회를 버티지 못했고, 김유신도 1.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두 선발 자원을 동시에 소진한 만큼 7연전은 일단 김현수로 시작한다. 멩덴, 이의리까지 계산이 서는 선발로 두산전 총공세에 나설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키움 4연전 마운드 힘이 떨어진다. 대체 선발 투입도 해야 하는 상황에 불펜도 걱정이다.

장현식-정해영 필승조의 부담이 크다. 6점 차에서도 정해영이 나서야 할 정도로 불펜진의 격차가 크다는 점도 고민이다.

그만큼 벤치에서 마운드를 효율적으로 잘 꾸려가야 한다.

‘홈런 최하위’ KIA는 지난 주말 3연전에서 5개의 홈런포를 날리면서 화력 점화를 끝냈다. 브룩스 이탈 이후 마운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타자들이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한다.

KIA가 위기의 7연전을 넘고 마운드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완도 출신’ 이소미 KLPGA 시즌 2승

이번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에서 우승한 이소미(22)가 이글 퍼트를 앞세워 넉 달 만에 시즌 하반기 첫 대회에서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완도 출신인 이소미는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 대유 몽베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

지난 4월 시즌 개막전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을 제패한 뒤 14개 대회를 우승 없이 보냈던 이소미는 시즌 16번째 대회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시즌 들어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6승의 박민지(23)에 이어 이소미가 두 번째다.

작년 10월 생애 첫 우승을 거뒀던 이소미는 9개월 만에 통산 3승을 일구며 KLPGA 투어의 간판급 선수로 자리 잡았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은 이소미는 상금랭킹을 4위(4억2846만원)로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15일 경기 포천 몽베르CC에서 열린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소미. /연합뉴스

동성고, 협회장기 전국 고교야구 준우승

광주 동성고의 협회장기 우승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동성고가 15일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열린 마산고와의 2021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3-9 역전패를 당했다.

앞선 경남고와의 16강전 6-5 승리를 시작으로 8강전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모두 9회말 끝내기 승리를 거뒀던 동성고였지만,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는 ‘뒷심 싸움’에서 졌다.

1회초 1사에서 몸에 맞는 볼로 나간 임주찬이 서하은의 땅볼로 2루까지 간 뒤 심명훈의 우전 안타 때 홈에 들어왔다.

2회에는 김성도와 정우석이 연속 볼넷을 얻어냈다. 조승혁의 희생번트 뒤 박민혁의 희생 플라이로 동성고가 2-0을 만들었다.

동성고 선발 신현민도 1회를 삼자범퇴로 열었고, 2회 1사에서 2루타는 맞았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넘겼다. 이어 5회까지 특별한 위기 없이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초반 싸움을 주도했다.

하지만 3·4·5회 모두 주자가 나갔지만 동성고가 추가점수를 얻지 못했고, 6회 ‘한방’에 승부가 뒤집혔다.

신헌민이 선두타자 박영훈을 상대로 이날 7번째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안현민을 좌전안타로 내보냈다. 유격수 땅볼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는 잡았지만 권우재의 중전안타로 첫 실점을 기록했다.

이어 신용석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맞으면서 2-3으로 승부가 뒤집혔다.

6회말 동성고가 김성도의 볼넷과 정우석, 조승혁의 연속 안타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박민혁의 병살타로 아웃 카운트 2개와 1점을 바꿨다.

매 이닝 주자가 나갔지만 무려 14개의 잔루를 남긴 동성고는 8회 연달아 실책을 기록하는 등 대거 5실점 하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KIA의 1차 지명 후보인 김도영은 8회말 기습번트 안타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특급 스피드’를 보여줬지만, 팀의 패배에 아쉬움을 삼켰다.

한편 ‘안방마님’ 안현민의 맹활약을 앞세운 마산고는 전국대회 첫 우승을 이뤘다. 강한 어깨를 자랑한 안현민은 8 차례 베이스도 훔치면서 이번 대회 도루상과 함께 수훈상을 받았다.

동성고에서는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끈 투수 송성종이 감투상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